

우리가 통과하는 것

유리가 통과하는 것

최나옥

20세기 초에 활동한 오스트리아 건축가 아돌프 로스Adolf Loos는 “유리 너머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는 교양인답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리가 다른 재료와 다른 점은 오직 “빛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기능 정도”라고 한정 지었으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불투명 유리ground glass 만을 고집했다. 건축이란 공간을 구분하는 직능이라 정의하는 근대건축가로서 당연한 생각이다. 오늘날 미니멀리즘 유행과 함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끔한 유리 인테리어가-‘장식은 범죄’라는 책을 남겼다는 이유로-아돌프 로스의 포스터나 책과 함께 연출돼있는 모습이란 자못 모순적인 광경이다.

현대에 이르러 유리 재료를 다루는 디테일은 로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더 얇게, 더 투명하게, 더 단순하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의지가 유리를 다루는 방식의 전제조건이었다. 재료를 얇게 만들어 최소한의 시각적 굴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며, 웬만한 유리 건물에는 전문 청소부가 매일 아침 출근해 얼룩이 지지 않도록 유리를 닦고, 주변부의 접합부는 최대한 숨겨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모방하는 것이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건물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요시오 다니구치Yoshio Taniguchi의 말은 그를 포함한 미니멀리즘 건축가들이 애용하는 유리 재료의 지향점을 드러낸다.

즉, 오늘날 유리의 사용은 건축을 정의해온 기존 통념에 도전하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회적 맥락이 뒷받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건축사가 베아트리지 콜로미나Beatriz Colomina는 20세기 유리 재료의 개발을 같은 시기 텔레비전 보급과 연결 짓는다. 텔레비전을 통해 다른 세계의 풍경을 보게 된 사람들의 시각성은

건물 너머를 바라보거나 바라봐지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던 근대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리창은 마찬가지로 스크린으로서 너머의 풍경을 연출할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해상도 높은 텔레비전 화면을 목표하듯 유리창은 더 얇고 더 투명하고 더 단순한 디테일을 모범으로 삼았다. 유리를 사용하는 많은 현대 건축가들은 으레 *안과 밖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건축 대신에 매체적인 이야기로 다시 쓰자면 *거리와 무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을 사회의 여타 매체와 견준 콜로미나의 논의는 시간 지나 더욱 힘을 얻는다. 말마따나 매스 미디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 전반에 성행하며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미술사가 할 포스터Hal Foster는 『복합체The Art-Architecture Complex』에서 한 세기 전 아돌프 로스의 의견이 21세기에 이르러선 완전히 정반대의 논지가 되어버렸음을 설명한다. 포스터에 따르면 건축은 더이상 공간을 구분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직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라봐지는 *스펙터클* 이미지로 존재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로스, 콜로미나, 포스터의 논의는 유리라는 재료가 일종의 매체로서 건축의 위상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 단계에 걸쳐 설명한다. 한때는 실내에 복속되어있는 어느 경계였다가, 외부와 연결짓는 프레임이 되고, 나아가 내부와 외부를 연결짓는 매개체로서 기존의 구분을 뒤바꾼다는 순서다. 건축 호황과 더불어 여기저기 사용된 유리는 이전처럼 실내를 사생활로서 보호하는 데 사용되기보다 얼마든지 보여주고 보고 싶어하는 시대의 욕망을 드러내는 재료였다. 커다란 시각 예술로서 건축은 매스 미디어로 대표되는 한 시대를

표상하는 분과가 되었고, 유리 재료는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건축의 본래 성질로 여겨지는 풍경도 실은 근대에 이르러 발명된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축 경험에 개입하는 사회의 영향관계는 쉬이 넘겨짚을 일이 아니다. 물리적인 재료 하나하나가 건축에 가져온 혁신은 늘 다른 사회 요소와 함께 이뤄졌다. 무엇보다 기존 건축 재료와 사뭇 다른 투명성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유리는, 건축에 관한 논의를 기존과 다른 차원에서 이뤄지게 했다.

그렇다면 매스 미디어의 시대를 지나 모두가 미디어로 존재하는 오늘날은 어떠한가? 곳곳에 뿔려있는 유리창은 이제 무엇으로 기능하는가? 유리 재료가 맺고 있던 사회와의 연관성은 또 다른 맥락을 의식하게 한다. 이제는 문밖에만 스크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손 안에서든 수많은 스크린을 발견할 수 있다. 유리창으로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풍경을 마주친다. 내용 또한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훨씬 먼 곳의 다양한 것을 담고 있다.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몇몇의 건축물이 세워졌더라는 할 포스터의 분석은 이제 소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두가 미디어 주체가 되어버린 세상을 맞이해 새로운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텔레비전 스크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듯, 소셜 미디어를 담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유리 너머의 풍경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념비적 건축이 아니더라도 모든 집구석이 인스타그램 피드로 생산되고 소비되니 건축 재료는 다른 방식의 용례를 꾀한다.

새로운 스크린은 유리창이 지니고 있던 물리적 특성-무언가를 관통시키고 연결지으며 반사한다-을 신경쓰지 않는다. 어차피 일련의

특성은 이미지 안에서 납작해지며, 해당 프레임을 통해 주변의 맥락은 삭제되기 때문이다. 스크린에 비치는 빛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스크린에 지는 그림자는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칭하지 않는다. 되려 사실과 무관하게 빛과 그림자를, 반사와 굴절을 알리바이 혹은 장식처럼 사용할 따름이다. 과거에 유리창이 *아늑한 실내*를 목표하는 맥락 속 *외부의 풍경을 스크린으로 바라보는* 기능을 도출했다면, 오늘날은 모든 공간이 이미지가 되어버린 맥락 속에서 그 또한 *그럴싸한 이미지*로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

투명한 유리 인테리어가 아돌프 로스와 병치돼있더라는 근래에 유행하는 인테리어에 대한 첫 문단의 묘사는 단순한 조롱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실제 기능이나 의미와 무관하게 모든 것이 이미지가 되어버린 풍경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예시이다. 건축 고유의 맥락을 신경쓰지 않는 이미지 환경 속에서, 늘 매개로서 존재해온 우리는 더이상 그러한 맥락과 매개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유리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유리 면 하나만을 고려할 수 없다. *무엇을, 얼마만큼 비출 것이냐*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가 유리를 사용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지 안에 들어선 우리는 어느 것과도 물리적 연관성을 맺지 않는다. 이미지 속 유리 재료는 과거의 어느 건축 재료와 마찬가지로 반사하거나 투과시키지 않는다. 설령 유리에 다른 상이 맺혀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새로운 이미지 환경 안에서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다. 이미지는 주변 맥락을 삭제하고 실제 물성을 조작한다.

홍콩과 중국 도처의 몇몇 고층 빌딩에는 유리 형상을 띤 창문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다. 언뜻 사람이 사는 건물에 가짜 재료를 붙여 두었다는 이유로 우스워 보이지만, 이미지 환경 안에서 이처럼 실질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만한 기능을 해내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유행과 함께 한강 뷰가 보이는 이미지로 벽을 꾸미는 것을 보라. 인테리어 단위에서 이미지를 경유한 공간 연출은 오늘날 우리가 스크린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것의 맥락을 가늠하게 한다. 근래에 하늘이나 창문의 모양을 본딴 회화와 사진 작품이 유행하는 인테리어 풍조 또한 오늘날 유리가 사용되는 방식과 강한 연관성을 지닌다. 그들은 어느 것도 연결하지 않지만 무언가를 지칭하는 듯한 환상을 심어준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참조적 성질에 기반하여 이미지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기능을 담당한다. 아돌프 로스가 주장한 *빛만을 투과시키는 유리*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아무것도 투과되지 않는 스티커로서의 유리는 오늘날 유리창의 표상이다. 이미지 환경 속에서 유리는 가짜 유리와 분별되지 못한다.



우리가 투과하는 것

© 최나옥 2022

글쓴이 최나옥

사진 이지안

글꼴 김성현

편집 백필균

인쇄 (주)갭프로세스

후원 서대문구, 신촌문화발전소

표지 폭 150mm 높이 150mm 4쪽 스노우지 150그램

내지 폭 150mm 높이 150mm 12쪽 스노우지 80그램

1쇄 2022년 10월 25일 500부